

## [5] 이 간

51년이라는 짧은 생애속에서도 그 학식과 덕망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까지 좋은 귀감이 되는 분이계시다.

이제 그분을 소개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되는일이 없기를 바랄뿐이다.

이간선생은 1677년(숙종3년)에 나시고 1727년(영조3년)에 돌아가신 조선시대 학자이시다. 자는 공지, 호는 외암 추월헌이였고 본관은 예산이며 권상하의 문인이셨다.

이분의 소년실화에에는 이런것이 있다. 당시 이고을에는 강씨가 수백년동안 살아왔다. 어느날 강씨의 꿈에 흰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 마을에는 강씨의 운이 다했으니 뒷집의 이간에게 집과 토지를 다 넘기고 이마을을 떠나도록 하라." 하고 백발노인은 연기같이 사라졌다. 강씨는 헛된 꿈이려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하루를 보냈다. 그날밤 전날 나타났던 노인이 또 나타났다. "내이놈, 내가 당장 이마을을 떠나라고 했는데 네놈이 멸족의 화를 당하고 싶으냐? 어서 이마을을 떠나거라." 하고 또 연기처럼 사라졌다. 강씨는 하루종일 그 꿈을 생각했다. 멸족의 화라고? 설마설마..... 그날 백발노인이 꿈속에 나타나 성난목소리로 "내 너에게 마지막으로 고한다. 이 마을을 당장 떠나거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멸족의 화를 입으리라." 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강씨는 날이 밝는 즉시 이간에 집을 찾아갔다.

"내 제발 부탁하네. 제발 우리집과 땅을 사주게나." "어르신네도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같은 가난뱅이가 어떻게 그 많은 토지를 다삼니까?" 강씨는 이간에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였다. "그러니, 다는 안되더라도 어떻게 조금 안되겠나? 집안어른과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값을 치르고 사 가게" 이간선생은 돈을 융통해서 강씨에게 주었다. 강씨는 그길로 떠났고 그뒤 이간은 강씨의 재산을 갖고 살았다.

소년시절에 이간 선생께서는 매사냥을 무척 좋아하셨다. 하루는 충북 제천지방으로 매사냥을 가셨는데 그때 송시열의 수제자이며 영의정으로 계시던 수암 권상하 선생이 이간선생을 보시고 말하시기를 "자네는 보아하니 글에 열중하면 훌륭한 인물이 될듯하니 매사냥은 그만 두고 공부를 하여 벼슬에 오르는 것이 어떨겠나?" 하였다. 이간께서는 그 즉시 밖으로 나와 잡았던 매를 다 풀어주고는 권상하의 수제자로서 학문에 열중하였다. 하늘이 알아주고 인간이 알아주는 인재이셨던 것이다.

그런 후 권상하의 생일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모였다. 제자들은 평소 공부하다 모르는 것을 여쭙기도 하였다. 이간께서도 궁금히 여기시던 것을 여쭙니 문득 권수암이 못들은척 하시는 것이었다.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뒤이어 다른 제자가 여쭙는 것은 명쾌히 답변을 하시는 것이었으니 더욱 이상히 여길 수 밖에 없었다. 이간께서는 제차 여쭙어도 대답이 없고 돌연 박장대소를 하시는 것이었다. 제자들중 한명이 공손히 그 까닭을 여쭙니 권수암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힘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물었으니 그만큼 성장한 학식이 기뻐 웃는다" 하셨다. 이 말씀에 모두들 이간선생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이간선생은 더욱 학문에 열중하셨다 한다.

외암 이간선생이 당시 제천, 한강이라는 지역의 권상하이하 문인들이 학문에 힘쓰던 조직인 강문 팔학사의 한사람으로 지내다가 권상하께서 돌아가시자 선생님이 추대받았으나 거절하셨다 한다. 아마도 덕망 높으신 그분의 겸손이 아닐까 한다.

1710년 숙종 36년 장릉 참봉으로 천거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그후 6년뒤 되업 회덕 현감, 경연관을 거쳐 충청도관찰사겸 해운관, 세자익위사, 익위등을 지내셨다. 강문 팔학사의 한분으로서 인물의 성은 동일하다는 인물동성론을 학문의 근본으로 하시고 같은 권상하의 문인 한원전의 인물의 성이 다르다는 학설과 반대하여 5, 6년간 논쟁을 거듭했고 그분의 학설을 지지하는 추종자들과 무리를 이루어 낙론을 형성했다.

이간선생은 글씨도 잘쓰셨으니 자꾸만 고개가 숙여진다. 온양 외암서원에 제향, 순조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셨고 시호는 문정공이라 한다.

숙종이 돌아가셨을때, 예조판서와 대제학같은 중신들과 의논하여 국상예절을 바로잡으리라 결심하신 이간선생은 이들에게 편지를 썼다.

"예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개국후 200년이나 지났는데도 국상제도가 문란한것은 커다란 부끄러움이다. 이번 국상에 슬픔도 막대하나, 지금 정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제도를 정비할 수 없을 것이다. 슬픔을 딛고 국상을 이리이러하게 치루자" 하는 것이 그 서찰의 내용이었으리라.

당장에 반발이 나왔다. 의도는 좋으나 국상제도가 너무나 혼잡하여 자칫 뜻을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간계서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국상을 치르고야 말았다. 질서 정연하고 참다운 국상답게 엄숙히 치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의 느낌은 정말로 컸으리라 생각된다. 조선시대 국상제도는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분의 공적을 찬양하여 이분의 묘는 지금도 동네에서 마주보이는 삼신당이라는 곳에 묘비와 함께 모셔져 있다.

이분이 사시던 동네를 외암리라 하며 이곳에는 예안이씨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있다. 얼마 전에 이마을은 민속관광마을로 선정받아 동네 곳곳에 옛날에 쓰이던 물건들을 진열해 놓고 있다.

51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분의 넋은 면면이 흘러 현 송악면 외암리 주민의 긍지가 되고 있다.

우연한 기회로 알게된 우리고장의 위인 이간선생께 자꾸만 감사한 마음이 우려남을 금할 길이 없다.

민속 관광마을을 나올때 거기의 하늘엔 무심한 한가닥의 바람이 스쳐지나가고 있었다. 마치 그분이 가신뒤의 무상한 세월을 일깨워 주기라도 하려는 듯이